



▶ 구약성서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 ◀

소형근(남서울대)

히브리어 '폐하'(פֶּהָ)에 대한 구약성서와 성서 외적 자료들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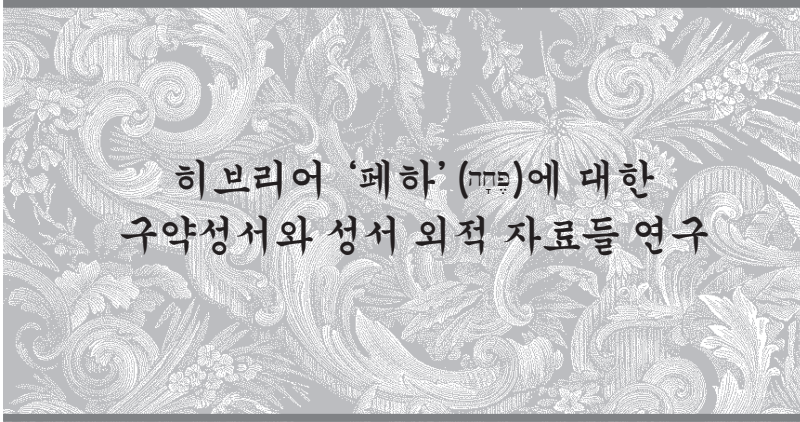
김성(협성대)

그리스의 출애굽 전승과 역사적 배경

정중호(계명대)

18세기 이전 중국과 한국의 십계명 번역과 해석의 역사

www.kci.go.kr



소형근 | 남서울대

1. 서론

‘총독’이라는 용어는 “어떤 관할구역 안의 모든 행정을 통할하는 직책”, 혹은 “식민지 통치 기구의 우두머리이며, 종주국에서 보내는데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통치권”을 가진 자의 의미다.¹⁾ 즉, 이 용어는 먼저 식민 통치를 전제하고 있고, 그 지역에 임명된 최고 우두머리이면서, 그 지역의 모든 행정적인 일들을 총괄하는 직책을 의미한다. ‘총독’은 구약성서에서도 자주 사용되며,²⁾ 가장 일반적인 히브리어 용어로 ‘페하’(פֶּהָ)가

* 이 논문은 2013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1)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인용.

2) 구약성서에는 우리말 ‘총독’이라는 용어가 전체 31회 사용되고 있다(왕상 20:24; 스 1:8; 5:3, 6, 14; 6:6, 7, 13; 8:36; 느 27, 9, 37; 5:14, 15, 18; 7:65, 70; 8:9; 10:1; 12:26; 에 9:3; 사 36:9; 단 32, 3, 27; 6:7; 학 11, 14; 22, 21; 말 1:8).



쓰인다.³⁾ ‘총독’, 즉 히브리어 ‘폐하’가 고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적용될 때, 어느 시대가 가장 적합할까?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추정해 볼 때, ‘폐하’는 사마리아가 멸망한 기원전 722년 이후나, 예루살렘이 멸망한 기원전 587년 이후로 상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그 지역은 앗시리아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었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후에도, 그 지역이 바벨론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마리아 멸망 후 사마리아 지역은 앗시리아의 관할 구역은 되었지만, 구약성서에는 이 지역에 앗시리아에서 ‘총독’을 임명한 흔적을 찾을 수는 없다. 따라서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초의 ‘총독직’ 임명을 사마리아 멸망으로 설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기이나 ‘폐하’에 대한 직접적인 연결을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다. 본 논문에서는 구약성서와 성서 외적인 자료들에 나오는 ‘폐하’라는 용어를 통해, 이 용어가 어느 시대를 기원하는지를 밝힐 것이며, 또한 ‘폐하’의 다양한 의미와, 비문학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포로 이후 사마리아와 예후드 지역의 ‘폐하’는 어떤 인물들이 있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2. ‘폐하’(𐤑𐤍𐤁)의 용례

히브리어 ‘폐하’가 히브리어 용례에서 언제 처음 사용되었고, 언제부터 다양한 관리직의 호칭으로, 혹은 개별적인 관리의 호칭으로 쓰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통일된 결과물이 없다.⁴⁾ 우선 이 히브리어 ‘폐하’는 아카드어에서 차용된 용어로 볼 수 있다. 폰 조텐(W. von Soden)은 ‘폐하’를 아카드어 ‘벨 피하티’(bēl pīḫāti), 혹은 ‘벨 파하티’(bēl pāḫāti)에서 기원된 단축형 단어로 보고 있다.⁵⁾ 히브리어 ‘폐하’는 구약성서에

3) 히브리어 ‘폐하’(𐤑𐤍𐤁)는 구약성서에서 전체 27회 사용되고 있다.

4) 이 논쟁에 대해서는 서론에서 약속한 바처럼 바벨론 포로기부터 본다.

5) W. von Soden, *Akkadisches Handwörterbuch 1*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65), 120a, Nr. 18; 참고.

서 전체 27회 사용되고 있고, 앓시리아의 ‘페하’(왕하 18:24; 사 36:9), 바벨론의 ‘페하’(렘 51:23, 28, 57; 겔 23:6, 23), 페르시아의 ‘페하’(에 3:12; 8:9; 9:3), 솔로몬 왕의 ‘페하’(왕상 10:15; 대하 9:14), 그리고 다메섹 왕의 ‘페하’(왕상 20:24)로 쓰이고 있다.⁶⁾ ‘페하’에 대한 구약성서의 용례만을 놓고 봤을 때, 그 사용 시기는 솔로몬 시대인 기원전 10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에 ‘페하’가 과연 이스라엘 관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페하’라는 직책은 아마도 앓시리아 제국의 행정기구에서 처음 사용되었고,⁷⁾ 이미 왕조 시대에 이스라엘 안에 알려져 있었지만, 히브리어 ‘페하’를 사용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 이전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구약성서 본문들은 문학비평적 연구를 통해 볼 때, 신명기 역사가, 혹은 그 이후시기로 연대를 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⁸⁾ 왜냐하면 히브리어 ‘페하’는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 그리고 포로기와 포로 이후 예언서 본문들에게 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왕상 10:15; 20:24; 왕하 18:24; 대하 9:14; 스 8:36; 느 2:7, 9; 3:7; 5:14[x2], 15, 18; 12:26; 에 3:12; 8:9; 9:3; 사 36:9; 렘 51:23, 28, 57; 겔 23:6, 12, 23; 학 1:1, 14; 2:2, 21; 말 1:8).⁹⁾

3. 신명기 역사서에서 ‘페하’(פֶּהָ)

열왕기상 10장 14–29절은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통치와 국제무역을 통해 얻게 된 부귀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뛰어난을 구체적으로 예

HALOT, 923. 폰 조덴은 ‘벨’(bel)이 직책에서는 생략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6) HALOT, 923. 그 밖에 유다에 있던 ‘페하’(학 11, 14; 22, 21; 말 1:8; 느 12:26; 5:14, 18)와 유프라테스 강 서쪽의 ‘페하’(스 8:36; 느 27, 9; 5:15)도 있다.

7) E. Forrer, *Die Provinzeinteilung des assyrischen Reiches* (Leipzig: Hinrichs, 1920), 59–63; E. G. Klauber, *Assyrisches Beamtentum nach Briefen aus der Sargonidenzeit* (LSS: V,3; Leipzig: Hinrichs, 1910), 99–104.

8)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라. U. Rüterswörden, *Die Beamten der israelitischen Königszeit* (BWANT 117; Stuttgart: Kohlhammer, 1985), 113–114.

9) 각주 3번을 참고하라.



시해 주고 있다.¹⁰⁾ 열왕기상 10장 15절¹¹⁾에는 솔로몬이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 받은 세금을 소개하고 있다. 이때 “나라의 고관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파호트 하아레쯔’(פַּחוֹת הָאֲרָרִיץ *niph*)다. 그러나 히브리어 ‘파호트’의 쓰임에 대해 그레이(J. Gray)는 “나라의 고관들”은 솔로몬의 각 행정구역을 다스리는 ‘지방 관리들’¹²⁾을 말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총독’이라는 단어가 초기 구문에서는 좀처럼 사용될 수 없는 용어이기 때문이다.¹³⁾ 엡센(A. Jepsen)이나 노트(M. Noth) 또한 그레이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들은 ‘총독’이라는 용어가 이스라엘에서 기원전 6세기 이전에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한다.¹⁴⁾

열왕기상 20장 22-25절에는 아람 왕의 신하들이 아람 왕에게 자문하는 내용으로, 왕이 다스리던 지역에 왕들(?)을 제하여 떠나게 하고, 그 대신 ‘총독들’(נִיפִּים)을 둘 것을 제안한다(왕상 20:24). 이 본문에는 아람인들이 ‘폐하’의 직책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전제하고 있는데, 아비가드(N. Avigad)는 인장에 나타난 증거를 통해 이 본문에 대한 역사성을 주장한다.¹⁵⁾ 그러나 뷔르트바인(E. Würthwein)은 24절의 ‘파호트’를 신명기 역사가 시대인 포로기에 추가된 본문으로 간주하면서, 앗시리아의 총독

10) 이형원, 『성서주석-열왕기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241.
 11) 열왕기상 10장 15절은 역대하 9장 14절과 유사본문이다.
 12) 그레이는 열왕기상 10장 15절의 ‘파호트’(פַּחוֹת)를 히브리어 ‘사르’(שָׂר) 정도로 이해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보는 듯하다.
 13) 존 그레이, 『열왕기상』 (한국신학연구소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393; 원제는 J. Gray, *1 Kings: A Commentary* (OTL; London: SCM Press, 1977). 그레이는 ‘폐하’는 아마도 앗시리아어에서 차용된 것으로 보이며, 열왕기하 18장 24절과 비교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14) A. Jepsen, *Die Quellen des Königsbuches* (Halle: Niemeyer, 21956), 104; M. Noth, *Könige 1-16* (BK IX;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3), 228-229. 노트는 ‘파호트’가 열왕기상 10장 15절에 사용된 것은 본문에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후대의 용어이며, 다윗-솔로몬 왕국의 외부 속주들을 관리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사무엘하 8장 6, 14절에서 ‘네페빔’(נִפְּבִים), 즉 ‘수비대’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페빔’으로 써야 한다고 본다.
 15) N. Avigad, *Bulæ and Seals from a Post-Exilic Judean Archive* (Qedem 4; Jerusalem: Hebrew University, 1976), 5-24.





시스템이 24절에 추가되었다고 보았다.¹⁶⁾ 뷔르트바인의 주장처럼 기원전 9세기 아합 왕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폐하’의 직책이 소개되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기원전 9세기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게도, 아람에게도 ‘폐하’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열왕기하 18장 24절에도 앗시리아 장군 랍사게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히스기야의 군사력을 경멸하면서, 히스기야의 신하들에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פַּחַת אֶחָד עֲבָדֵי אֱלֹהֵי הַמִּצְרַיִם)이라도 이스라엘이 물리칠 수 있느냐고 반문하는 내용 중에 히브리어 ‘파하트’를 사용하고 있다. 기원전 8세기 앗시리아는 총독, ‘폐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앗시리아 장군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지만, 남 왕국 유다에는 그런 ‘총독’ 체제가 운영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¹⁷⁾ 이 ‘폐하’라는 단어는 히스기야 시대에 낡은 용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열왕기하 18장 24절은 신명기 역사가에 의한 포로기로 추정되는 본문으로 보인다.¹⁸⁾ 결과적으로 열왕기상 10장 15절과 열왕기상 20장 24절, 그리고 열왕기하 18장 24절은 그 기록의 시점을 신명기 역사가나, 후기 신명기 역사가 시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¹⁹⁾

4. 유다 왕조 말과 포로기 예언서에서 ‘폐하’(פַּחַת)

구약성서 예언서에는 히브리어 ‘폐하’가 8회 사용되고 있다. ‘폐하’는

16) E. Würthwein, *Die Bücher der Könige: 1.Kön.17z.Kön.25* (ATD 11,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4), 237.

17) 기원전 722년에 북 왕국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27,280명 정도가 포로로 끌려갔으며, 그 지역이 앗시리아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된다. 그러나 사마리아 지역을 앗시리아 정부가 속주로 삼고, 그곳에 ‘총독(폐하)’을 임명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역사적 기록을 알 수 없다.

18) K.-D. Schunck, “Das Amt des פַּחַת im Alten Testament”, S. Beyerte, G. Mayer und H. Strauß (ed.), *Recht und Ethos im Alten Testament: Gestalt und Wirkung*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9), 92. 슨크는 열왕기하 18장 24절을 DiN을 통해 형성된 본문상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19) 참고, 한동규, “신명기의 역사적 사유와 신학”, 『구약논단』, 39집 (2011년 3월), 12-29.





주로 포로기와 포로 이후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데, 이는 앗시리아와 바벨론 정부에 있던 ‘총독직’을 전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기원전 6세기 초반으로 추정되는 히브리어 ‘폐하’ 사용이 유다 지방과 바벨론 포로지, 두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예언자 에스겔은 기원전 597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그발 강가인 텔아빔에 거주하던(겔 3:15) 디아스포라 상류층에 속한 사람이었다.²⁰⁾ 에스겔은 에스겔 23장에서 행음한 두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소개하는데, 오홀라는 앗시리아에 유혹된 사마리아를, 오홀리바는 바벨론에 유혹된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있다(겔 23:4). 그런데 이 상징적인 이야기 안에 히브리어 ‘파호트’(𐤑𐤁𐤕)가 세 번 쓰이고 있다(겔 23:6, 12, 23). 에스겔 23장 6, 12절은 앗시리아의 ‘파호트’를 말하고 있고, 에스겔 23장 23절은 바벨론과 그 주변 지역들의 ‘파호트’를 말한다. 이 세 본문에 사용된 히브리어 ‘파호트’는 바벨론에서 바벨론 사람들의 관직들과 행정조직을 경험한 예언자 에스겔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비교할만한 본문이 예레미야서에도 나온다(렘 51:23, 28, 57). 예레미야서의 세 본문은 바벨론과 메데의 ‘파호트’(𐤑𐤁𐤕)를 지적해 주고 있다. 그런데 에스겔 본문과 예레미야 본문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파호트’(𐤑𐤁𐤕)와 함께 ‘스가님’(𐤎𐤓𐤁𐤍)²¹⁾이 여섯 본문 모두 나란히 사용되고 있으며, ‘파호트’가 먼저 나오고, 그 뒤를 ‘스가님’이 잇고 있다는 점이다. 짐머리(W. Zimmerli)는 ‘파호트’와 ‘스가님’의 용례를 앗시리아 속주 시스템(das assyrische Provinzialsystem)이 분명하다고 지적하는데,²²⁾ ‘파호트’가 ‘스가님’보다 먼저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마도 ‘파호트’가 ‘스가님’보다 더 높은 관직이었기 때문으로 보인

20) 도널드 E. 고웬, 『구약 예언서 신학』 (차준희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²2006), 288. 원제는 D. E. Gowan, *Theology of the Prophetic Books: The Death & Resurrection of Israe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8).

21) 히브리어 ‘사간’(𐤑𐤁)은 바벨론어 ‘사크누’(šaknu)에서 온 차용어다(HALOT, 701). ‘사간’은 ‘폐하’처럼 바벨론과 메데에서 고위직 관리였다(K. Elliger, *Deuteroseaja 40:1-45:7* [BK XI, 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189).

22) W. Zimmerli, *Ezechiel 1-24* (BK XIII/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²1979), 543.





다. 물론 아람어 본문에 해당하는 다니엘 3장 2-3, 27절(דָּנִיֵּאל וְיִחְזְקִיא וְחַנְּנִיא)에는 ‘스가님’이 먼저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느헤미야 2장 16절(방백들)과 느헤미야 4장 13절(민장들[한글성경 4장 14절])²³⁾에는 느헤미야의 하위 직책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스가님’으로 부르고 있다. 즉, 속주의 최고 책임자인 느헤미야의 하위 관리자로서 ‘스가님’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때, ‘파호트’가 ‘스가님’보다 더 높은 관직임에 분명하다.

이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된다. ‘폐하’의 기원은 앗시리아 속주 시스템으로부터 기원된 것이지만, 이 ‘폐하’를 구약성서 안에서 이해하고, 사용하게 된 것은 기원전 6세기 초반인 바벨론 포로기부터였으며, 이 ‘폐하’는 항상 속주 총독의 기능을 가진 고위직 관리에 대한 호칭으로 쓰였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앗시리아 제국의 행정조직을 바벨론 제국이 넘겨받아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5. 포로 이후 본문들에서 ‘폐하’(הַחַדָּשׁ)

1) 페르시아 시대 예후드

포로 이후 시기는 페르시아 제국 시대와 맞물리는 시기다. 페르시아 시대에 예후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유다 지역이 바벨론의 속주였다면, 포로 이후에도 유다는 페르시아의 속주였을 것이다.²⁴⁾ 페르시아 시대 예후드 지역의 특징들 중 하나는 인구가 지방으로 많이 분산되었다는 점이다. 호글룬트(K. Hoglund)는 페르시아 왕이 제국의 대부분 지역들에 도시화 정책을 펼쳤으며, 그 결과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었지만, 예후드 지역만큼은 예외였다고 주장한다. 즉, 예후드의 대부분 지역들은 요새화 되지 않은 촌락들이었으며, 이런 촌락들에 정착민들이 이

23) 그 밖에도 느헤미야 4장 19절, 5장 7, 17절, 7장 5절, 12장 40절, 13장 11절에 ‘스가님’이 쓰이고 있다.

24) 참고, 김지은, “페르시아 제국시대 시리아-팔레스틴의 행정체제”, 『구약논단』, 6집 (1999년 6월), 145-171; 민경진, “페르시아 제국시대의 유대역사 재구성”, 『구약논단』, 27집 (2008년 3월), 113-137.



전 보다 25% 이상 증가를 보이고 있었다고 주장한다.²⁵⁾ 그렇다고 한다면 포로 이후 예후드 주민들은 예루살렘이나, 벧학게렘, 미스바, 벧술, 그일라, 여리고와 같은 큰 도시들(느 3장)에만 집중적으로 정착하지 않고, 예후드의 인구가 지방에 대체로 분산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예후드 지역에 변화가 찾아왔다. 기원전 5세기 중반이 되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속주들에 변화가 온 것이다. 기원전 485년에는 페르시아 통치에 저항하는 레반트 지역의 소요사태가 있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페르시아 정부는 사마리아 속주를 재조직하게 되었으며, 예후드 지역은 이 시기에 완전한 정치적 독립을 부여받았던 것으로 보인다.²⁶⁾ 이것은 그 이전까지만 해도 예후드 지역은 사마리아 속주에 예속된 지역이었음을 의미한다. 예후드 지역이 독립된 속주가 되었다는 것은 아마도 페르시아 정부에 대한 예후드의 충성심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페르시아 정부에 저항하는 이집트 폭동이 기원전 5세기에 이나로스(Inaros) 주도 아래 시작되자, 페르시아 정부는 이 폭동을 진압하고, 그리스를 위협할 목적으로 예후드 지역에 군사력을 증강시키며, 요새들을 건설하게 되었다.²⁷⁾ 물론 이런 요새화가 단순히 군사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제국의 입장에서는 증가된 상업 활동으로 인해 무역로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외부 침략을 막기 위한 제국의 서부지역 첫 번째 방어선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²⁸⁾ 이런 상황은 느헤미야 본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컨텍스트를 제공해 준다. 즉, 느헤미야 회고록에 따르면, 느헤미

25) K. Hoglund, "The Achaemenid Context", in P. R. Davies (ed.), *Second Temple Studies 1: Persian Period* (JSOTSup. 117;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1), 54-68.

26) K. Hoglund, *Achaemenid Imperial Administration in Syria-Palestine and the Missions of Ezra and Nehemiah* (Atlanta: Scholars Press, 1992), 69-86.

27) E. Stern, *Material Culture of the Land of the Bible in the Persian Period 538-332 B.C.* (Warminster: Aris & Philips Ltd, 1982), 245-249; idem, "The Persian Empire and the Political and Social History of Palestine in the Persian Period", *CHU* 1 (1984), 82-86.

28) C. E. Carter, *The Emergence of Yehud in the Persian Period: A Social and Demographic Study* (JSOTSup 294;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44-45.



야는 예루살렘에 오면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שַׁעְרֵי הַבְּיָרָה אֲשֶׁר-לְבַיִת)과 “성곽”(חוֹמַת הָעִיר)과 느헤미야가 들어가 살 “집”(בַּיִת)을 건축할 “재목”(עֵצִים)을 요청한다(느 2:8). 그러자 아닥사스다 왕은 자신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 이를 허락한다. 이후 예루살렘에는 “영문의 관원”(שַׂר הַבְּיָרָה) 하나냐가 임명된다(느 7:2). 느헤미야 2장 8절은 예후드, 특히 예루살렘을 요새화 하려는 페르시아 왕과 느헤미야의 미션이 서로 의견일치를 이룬 것이며, 느헤미야 7장 2절은 예후드의 적들이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에 대항하는 강력한 시위가 있었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예루살렘과 예후드의 신분과 위상이 그 이전 시기보다 훨씬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²⁹⁾

2) 예후드 지역의 ‘폐하’: 세스바살, 스룹바벨, 느헤미야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의 자리를 대체했던 시기에도 ‘폐하’라는 호칭이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라는 의미 그대로 계속 유지되어 왔던 것일까? 알트(A. Alt)와 그를 따르는 학자들은 히브리어 ‘폐하’가 속주의 ‘총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외에도 페르시아 왕이 임명한 특별한 인물을 가리키거나, 혹은 페르시아 정부의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자를 말할 때 사용한다고 본다.³⁰⁾ 그러나 아비가드(N. Avigad)나 야펫(S. Japhet), 그리고 볼프(H. W. Wolff)와 같은 학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이들은 예후드가 페르시아 통치 시작과 함께 사마리아로부터 독립된 속주 상태를 유지하면서 속주의 총독이 다스렸다고 주장한다.³¹⁾ 이들의 주장

29) 윗글, 45.

30) A. Alt, *Kleine Schriften zur Geschichte des Volkes Israel 2* (München: C. H. Beck, 1953), 333–334; K. Galling, *Studien zur Geschichte Israels im persischen Zeitalter* (Tübingen: Mohr, 1964), 133, 135; H. Donner, *Geschichte des Volkes Israel und seiner Nachbarn in Grundzügen 2* (GAT 4,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5), 454.

31) N. Avigad, 윗글, 32–36; S. Japhet, “Sheshbazzar and Zerubbabel”, *ZAW* 94 (1982), 80–98; H. W. Wolff, *Dodekapropheten 6: Haggai* (BK XIV, 6;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6), 22.





은 비문학적인 자료에 근거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확실한가 물었을 때, 이 주장에는 분명한 증거가 없다.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파견할 때(느 2:5-6), 느헤미야는 새로운 속주의 총독인 ‘폐하’로 임명되었다는 내용이 느헤미야 본문에는 없다. 느헤미야는 단지 제한적인 시간(“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느 2:6]) 동안, 자신의 미션(“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느 2:5])을 수행할 자로 임명되었다는 내용이 전부다.³²⁾ 따라서 예후드가 페르시아 통치시기로 넘어가면서, 이미 독립적인 속주가 되었다는 주장은 의심스러워 보인다. ‘폐하’의 의미에 대한 정확한 쓰임과 페르시아 시대 예후드의 독립적인 속주로서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스바살과 스투바벨을 이해해야만 한다.

(1) 세스바살과 스투바벨

세스바살이라는 이름은 구약성서에서 에스라 본문에서만 네 번 사용되고 있는데(스 1:8, 11; 5:14, 16), 이 이름은 비유대식 이름이다. 즉, 세스바살(שֶׁסְבַאֵל)이라는 이름은 아카드어 ‘사마쉬-아브(아바)-우즈르’(*šamaš-ab[ā]-uṣur*,³³⁾ ‘사마쉬가 주를 보호한다’)에서 나온 것으로 자음이 축약된 이름이다. 세스바살의 이름은 아카드어이지만, 세스바살은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었다. 세스바살이 바벨론식 이름을 가진 것은 그가 바벨론에서 태어나, 성장했을 뿐이지, 그는 아마도 명망 있는 유대 가문 출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³⁴⁾ 에스라 1장 8절에 세스바살

32) 슈미트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이후에 “총독”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베르너 H. 슈미트, 『구약성서 입문 1』 (차준희/채홍식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236. 원저는 Werner H. Schmidt, *Einführung in das Alte Testament* (Berlin: Walter de Gruyter, 1995).

33) P. E. Dion, “שֶׁסְבַאֵל and סְסוּרָי”, *ZAW* 95 (1983), 111-112.

34) 역대상 3장 18절에는 여고나(=여호아긴)의 아들들 중 세낫살(שֶׁנַּתְשַׁל)이라는 이름이 나온다. 그러나 세스바살(שֶׁסְבַאֵל)과 세낫살(שֶׁנַּתְשַׁל)이라는 이름 사이에는 언어적인 차이점 때문에 이들을 동일인물로 볼 수 없다. P.-R. Berger, Zu den Namen “שֶׁסְבַאֵל und שֶׁנַּתְשַׁל”, *ZAW* 83 (1971), 98-100.



을 가리켜 “유다의 목백”(개역성경, הַנָּשִׂיא לַיהוּדָה)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유다의 왕자(a prince of Judah)라는 의미다.³⁵⁾ 페르시아 왕 고레스 2세가 기원전 538년에 고레스 칙령을 내려 바벨론으로 가져온 이전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금은 그릇들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도록 허락하는데, 비유대인을 임명하여, 그 일을 수행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아마도 세스바살은 고레스에게 신임을 얻고 있던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예후드 지역에 성전 그릇들을 제자리에 되돌려 놓는데(스 6:3-5) 적합했던 유대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에스라 본문은 이런 세스바살을 ‘유다의 목백’(הַנָּשִׂיא לַיהוּדָה) 말고도, ‘폐하’(הַחֵהָב)라고 부르고 있다(스 5:14). 그렇다면 이 ‘폐하’라는 호칭이 당시 예후드 지역이 사마리아 속주로부터 독립된 속주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 돈너(H. Donner)는 세스바살의 역할이 제한된 시기동안 특별 임무를 수행하는 자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³⁶⁾ 즉, 세스바살은 고레스 왕의 칙령에 명시된 성전건축(스 5:16; 6:3-4)과 이전 예루살렘 성전 그릇들을 제자리에 두는 미션을 부여받게 되었던 것이다(스 1:7-11; 6:5). 그러나 돈너의 주장과는 달리, 야펫(S. Japhet)은 세스바살이 페르시아의 독립된 유다 속주의 첫 번째 총독이었다고 주장한다.³⁷⁾ 그러나 고레스 2세가 바벨론의 권력을 이양한 직후, 아직 완벽하게 바벨론 제국 지역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역에 있는 바벨론의 행정구역을 개편하여 새로운 행정구조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³⁸⁾ 예후드 지역은 기원전 587년 남 왕국 유다

35) 세스바살을 가리켜 “유다의 왕자”라고 호칭한 의도는 에스라 본문의 기록자가 세스바살을 다윗계 후손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36) H. Donner, *위글*, 434; 그 외에도 다음을 참고하라. W. Rudolph, *Esra und Nehemia* (HAT 20; Tübingen: Mohr, 1949), 62; K. Galling, *위글*, 133; S. Hermann, *Geschichte Israels in alttestamentlicher Zeit* (München: Kaiser Verlag, 21980), 366.

37) S. Japhet, *위글*, 92-98.

38) 기원전 539년 이후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시리아 지역이 페르시아 제국 안으로 편입되었다. 비교, K. Galling, *위글*, 40-42.



가 멸망한 이래, 느부갓네살이 점령한 유다의 나머지 지역들과 함께 사마리아 속주에 속하는 남부 행정구역에 불과했었다. 만약 예후드 지역이 사마리아 속주로부터 분리되어, 페르시아의 독립된 속주가 될 수 있는 시기를 추정한다면, 그 시기는 다리오 1세 시대에나 가서야 생각해 볼 수 있다.³⁹⁾ 따라서 고레스 2세 때부터 예후드 지역이 사마리아 속주로부터 독립된 속주가 되었을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문제는 에스라 본문에서 세스바살을 ‘폐하’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이다(스 5:14). 그렇다면 이 ‘폐하’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페르시아 제국 초기 정황상 세스바살은 사마리아 속주에 속한 예후드 지역의 최고 책임자이거나, 혹은 사마리아 총독의 통제를 받는 하위 개념의 총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폐하’는 속주의 ‘총독’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속주의 일부 행정구역을 다스리는 ‘최고 책임자’로도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왕국 유다가 느부갓네살 2세에 의해 점령된 후, 느부갓네살은 유다 지방에 그달리야를 ‘최고 책임자’로 임명했다(왕하 25:22). 그달리야에 대한 정확한 직책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달리야가 다윗계 유다 지파가 아니다 보니, 신명기 역사서에서는 그의 정확한 직책을 기록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그달리야는 다윗 왕족의 후손 이스마엘에 의해 살해당했다(왕하 25:25). 그러나 그달리야 이후, 그달리야 자리를 대신하는 직책은 아마도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⁴⁰⁾ 그달리야 이후, 구약성서에 그달리야의 자리를 처음 대신하는 자리에 세스바살이 있다. 세스바살이 예후드 지역 ‘최고 책임자’였기 때문에, 예후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세스바살을 ‘폐하’로 여겼던 것이다. 그러나 예후드 지역은 아직 독립된 속주가 아니었고, 사마리아 속주에 속한 일부 행정구역이었으며, 그곳에 세스바살이 ‘폐하’로 임

39) 아하수에로 1세(비교, 스 46)와 아닥사스다 1세(비교, 스 47-23) 시기에는 유다의 독립에 대한 사마리아인들의 향의가 빚발쳤으며, 예루살렘 성벽건축을 금지하는 아닥사스다 1세의 명령이 유다 속주의 총독(?이 아닌, 사마리아에 있는 고소인(아마도 총독 산발랏)에게 향하고 있다. S. E. McEvenue, "The Political Structure in Judah from Cyrus to Nehemiah", *CBQ* 43 (1981), 353-364.

40) M. Noth, *Geschichte Israel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6), 261.



명되어, 임무를 수행했던 것이다.

구약성서에는 세스바살처럼 스룹바벨 또한 ‘폐하’로 불리고 있다. 에스라 본문에는 스룹바벨을 직접적으로 ‘폐하’로 불리지 않고,⁴¹⁾ 포로 이후 예언서인 학개서에서만 ‘폐하’로 불리고 있다(학 1:1, 14; 2:2, 21). 스룹바벨은 세스바살처럼 바벨론에서 태어나, 비유대식 이름을 갖고 있다. ‘스룹바벨’(שְׂרָפְבָּלָא)이라는 이름은 아카드어 ‘제르-바빌리’(Zēr-Bābīlī)⁴²⁾에서 나온 것으로 ‘바벨의 후손’이라는 뜻이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나온 후손이며, 기원전 597년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왕 여호야긴의 손자였다(참고, 대상 3:17). 스룹바벨은 유대인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세스바살처럼 페르시아 왕의 호의와 신뢰를 받았던 자여서, 다리오 1세는 기원전 522년 왕위 즉위 바로 직후, 스룹바벨을 예후드 지역의 ‘최고 책임자’로 임명하여,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던 42,360명의 유대인들을 자신들의 옛 고향, 예후드 지역으로 되돌아가게 허락했다(스 2:1-2; 느 7:6). 세스바살 시대에 좌절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재건과 아울러 예후드에 귀환자들이 돌아오는 미션을 스룹바벨이 수행하게 되었다(스 6:6-10). 이러한 스룹바벨은 세스바살의 ‘폐하’ 직책을 넘겨받게 된다. 스룹바벨을 ‘폐하’라고 부르고 있는 구약성서의 모든 본문들은 스룹바벨을 정확히 ‘파하트 예후다’(פַּחַת הַיְהוּדָה, 학 1:1, 14; 2:2, 21), 혹은 ‘파하트 예후다예’(פַּחַת הַיְהוּדָא, 스 6:7)라고 소개하고 있다. 아비가드와 야벳과 볼프는 예후드가 스룹바벨 시기에 사마리아 외에 고유의 속주를 형성하고 있었고, 스룹바벨이 이 속주의 총독이었다고 인장기록과 관련하여 주장한다.⁴³⁾ 그렇다면 예후드 지역이 기원전 520년 경 사마리아 속주로부

41) 스룹바벨을 ‘유다의 총독’으로 부르는 본문이 에스라 6장 7절에 나오지만, 정확히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42) HALOT, 268.

43) N. Avigad, *유태어*, 32-36; S. Japhet, *유태어*, 80-94; H. W. Wolff, *유태어*, 22.

터 독립된 속주로 분리되었던 것일까? 기원전 520년경부터 다리오 1세는 총독들을 정리하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재편성을 시도했었다.⁴⁴⁾ 그러나 다리오 1세 때에도 예후드 지역은 사마리아 속주에 예속된 지역에 불과했다. 스룹바벨은 세스바살 때 이미 얻은 직책을 따라, ‘파하트 예후다’(פַּחַת יְהוּדָה), 혹은 ‘파하트 예후다예’(פַּחַת יְהוּדָיָא)라는 예후드 지역의 ‘최고 책임자’로 활동한다.⁴⁵⁾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의 출신과 직책과 활동 사이에 중요한 유사점이 존재한다. 즉, 이 두 사람은 바벨론에서 성장한 유대인으로, 페르시아 왕의 두터운 신뢰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으며, 예루살렘과 예후다와 관련된 일들을 행하도록 예후드 지역에 임명되었으며, 이들은 예후드 지역의 ‘최고 책임자’인 ‘폐하’로 불리던 자들이었다.

(2) 느헤미야

기원전 444년경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1세 왕의 술관원으로서 수사(Susa)에 살던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1세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어낸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도시 재건을 착수했다(느 2:1-6; 3장).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오게 되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들이 산발랏으로 하여금 느헤미야를 경계하게 만들었으며, 예후드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던 암몬의 ‘최고 책임자’ 도비아 역시 느헤미야를 불신하고, 거부하게 되었다(느 2:10, 19-20; 3:33-35). 그러나 산발랏이나 도비아는 느헤미야가 행한 일들을 무력으로 저지하지 않았고, 느헤미야를 권력으로 구금하지도 않았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왕의 특별한 임무 수행자 신분이었기 때문이었으며, 느헤미야는 사마리아 속주의 총독이나, 그 하위 신분인 암몬 지역 총독의 지휘권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신분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본래 느헤

44) O. Leuze, *Die Satrapeneinteilung in Syrien und im Zweistromlande von 520 bis 320* (SKG.G 114; Halle: Niemeyer, 1935), 157-210.

45) K. Galling, *위클리*, 135.

미야의 신분은 ‘폐하’가 아니었다.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임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역할이 전부였다(느 2:6). 즉,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의 일은 페르시아 왕과 약속된 시간 안에, 약속된 일을 마치면, 그것으로 그의 임무는 완수된 것이었다. 그러나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느헤미야의 위치와,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적개심 고조(느 4:1-2), 그리고 페르시아 정부의 예후드 지역에 군사력 증강과 요새화 건설이 맞물려, 아닥사스다 왕의 새로운 결심을 이끌어내게 되었다. 아닥사스다 왕은 사마리아 속주로부터 예후드 지역을 분리시켰고, 이 예후드 속주에 총독으로서 느헤미야를 임명하게 된 것이다(느 5:14).⁴⁶⁾ 이러한 아닥사스다의 결정은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동안 일어났던 사건이었고, 또한 느헤미야의 특별 임무가 완료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었다. 따라서 산발랏은 계속해서 사마리아의 속주로 남아 있게 되었고,⁴⁷⁾ 느헤미야는 이제 새로운 독립 속주의 ‘폐하’로 임명되어, 사마리아 속주의 총독 산발랏과 동급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6. 구약성서 외적 자료들에서 ‘폐하’(הַמֶּלֶךְ)

독립된 속주로서 예후드 지역의 첫 번째 ‘폐하’가 느헤미야였다고 한다면, 느헤미야의 뒤를 이어 예후드 지역에 ‘폐하’가 계속 임명되었다. 구약성서 외적 자료들에 의하면 예후드 지역에 또 다른 ‘폐하’, ‘바고히’(Bagohi)가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A 4.7,1// 4.8,1//4.9,1). 이 바고히는 엘레판틴 파피루스에 세 번 언급되고 있는데, 예다냐(Jedanja)와 그의 동료들, 그리고 엘레판틴 제사장들의 청원서에 바고히가 ‘예후드

46)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5장 15절에서 자신보다 앞서 있었던 총독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들은 아마도 그달리아 이후 예후드 지역을 통치하던 ‘최고 책임자들’을 말하는 듯하다.

47) 엘레판틴 파피루스에 의하면 산발랏은 기원전 407년에 ‘파하트 쇼메론’(פַּחַת שׁוֹמֵרוֹן)으로 불리고 있었다. B. Porten, *The Elephantine Papyri in English: Three Millennia of Cross-Cultural Continuity and Change* (Leiden: Brill, 1996), A 4.7,8.



의 총독(פַּחַח יְהוּדָה)으로 거명되며, 청원인들이 이 바고히를 “우리의 주”(our lord)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바고히의 답장에는 직책이 나오지 않고, 오직 이름만 나온다. 이 청원서는 다리오 2세 17년인 기원전 407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며, 다리오 2세 14년에 있었던 엘레판틴 성전 파괴와 관련된 내용이다. 엘레판틴 파피루스에는 예후드의 총독 바고히와 동시대 인물로 사마리아 지역 총독 산발랏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그의 두 아들 델라야(Delaja)와 셸레먀(Shelemja)가 산발랏의 직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준다(A 4.7,29//4.8,28).

또한 예후드의 총독 바고히의 뒤를 이어 예히스기야(Jechezkia)가 나온다. 당시 예후드 지역 주화들에는 총독 예히스기야가 여러 번 나오는데, 완전한 직책을 포함한 ‘예후드 총독 예히스기야’([...]יְהוֹזִכִּיָּהּ הַפַּחַח יְהוּדָה)나, 혹은 ‘총독 예히스기야’([...]יְהוֹזִכִּיָּהּ הַפַּחַח יְהוּדָה), 혹은 ‘예히스기야’(יְהוֹזִכִּיָּהּ)라는 이름만 나오는 경우도 있다.⁴⁸⁾ 주화에 기록된 문자는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으며, 기원전 4세기 중반이나, 혹은 후반인 헬레니즘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 혹은 이미 헬레니즘 시대로 보기도 한다.⁴⁹⁾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히스기야가 유다 속주의 총독으로서, 총독 바고히의 후임이었다는 점이다. 주화라는 것은 당시 경제적 자치능력에 대한 높은 척도를 말하는 것이다.⁵⁰⁾

엘레판틴 파피루스에서 알려진 산발랏의 후임에 대한 증거들이 기원전 4세기 자료들 가운데 나온다. 사마리아 파피루스들과 그 안에 찍힌 인장들에 변화를 발견하게 되는데, 즉, [...]יְהוּ בֶן [...]בַּלַּט פַּחַח שְׁמֹר [...]. 사마리아 파피루스의 산발랏이 엘레판틴 파피루스에 나오는 산발랏이든(비교, A 4.7,29), 혹은 그의 아들이든,⁵¹⁾ 야웨라는 이름을 가진 자

48) 요세푸스의 Ap 1 187-190에 예히스기야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인물은 프톨레미 1세 때 대제사장 예제키아(Ezekia)로 보이지만, 그러나 확실치는 않다.

49) R. G. Kratz, *Das Judentum im Zeitalter des Zweiten Tempels* (FAT 42; Tübingen: Mohr, 2004), 94.

50) C. E. Carter, *위글*, 281.

51) 크로스는 사마리아 파피루스에 나오는 산발랏을 산발랏 2세로 생각하며, 이 산발랏을 엘레판틴 파피루스





(יהו[...])가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불리고 있다. 다른 자료(WDSP 7,17; 8,10; 9,14)에서는 하나냐(Hananja)라는 인물이 사마리아의 총독(שמרין)으로 나온다. 이 하나냐라는 인물은 WDSP 11r,13에서 언급된 하난(Hanan)과 동일한 인물이며, 지방장관(סגנא)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다.⁵²⁾ 하나냐는 산발랏의 아들과 함께 언급되고 있다.

그 밖에도 예후드 지역에서 발견된 인장들에 ‘폐하’와 함께 사용된 자료들이 있다. 총독, ‘폐하’라는 직책과 함께 예호에셀(Jehoezer; פחוא יהועזר)은 속주의 이름과 함께 쓰이고 있고, 아흐자이(Ahzai; פחוא אחזאי)와 엘나단(Elnatan; פחוא אלנתן) 그리고 [...] אמת אלנתן פח[...]은 속주 이름이 없이 총독의 직책과 함께 쓰이고 있다. 하나냐(Hanana) 혹은 하누나(Hanuna), 말키우(Malkiu), 우리우(Uriu), 그리고 [...] בר ישב [...] 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이름들은 직책이 사용되지 않고, 예후드라는 속주의 이름과만 함께 쓰이고 있다. 그러나 예후드 총독(יהוד פחוא)은 기록되었으나, 이름이 없는 익명의 인장들도 있다.⁵³⁾

결론적으로 ‘폐하’(פחה)라는 단어는 바벨론 포로 초기에 바벨론의 영향으로 히브리어 용례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는 구체적인 직책인, ‘총독’을 가리키는 것이 되었다. 그러나 구약성서에는 ‘폐하’가 속주의 ‘총독’ 외에도, 속주의 일부 행정구역을 다스리는 ‘최고 책임자’의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또한 사마리아와 예후드의 총독들이 성서 외적인 자료들인 파피루스나 인장 등을 통해 알려져 있다.

들에 나오는 산발랏 1세들과 구별하고 있다. 크로스는 느헤미야 본문에 나오는 산발랏을 산발랏 1세로 보고, 엘레판틴 파피루스에 나오는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으로 기원전 450년에 활동했던 산발랏으로 보며, 엘레판틴 파피루스에 나오는 산발랏은 기원전 407년에 나이든 산발랏 1세로 본다. F. M. Cross, "A Report on the Samaria-Papyri", *VTS* 40 (1988), 17-26.

52) R. G. Kratz, *위글*, 96.

53) C. E. Carter, *위글*, 259-268. 블렌킨소프는 아비가드의 글을 인용하여, 포로 이후 예후드 지역을 통치하던 총독들의 명단을 시간적으로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세스바살, 스룹바벨, 느헤미야, 바고히, 예히스기야, 엘나단, 예호에셀, 아흐자이. J. Blenkinsopp, *Judaism: The First Phase* (Grand Rapids: Eerdmans, 2009), 111.



7. 결론

지금까지 구약성서와 성서 외적 자료들에서 ‘폐하’에 대한 쓰임과 ‘폐하’가 누구였는지를 살펴보았다. 히브리어 ‘폐하’는 앓시리아 속주 시스템에서 기원된 것으로, 구약성서에는 신명기 역사가에 의해 수용되었고,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 이스라엘이 ‘폐하’를 인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폐하’는 속주의 ‘총독’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속주’의 일부 행정구역을 다스리는 ‘최고 책임자’를 말할 때도 사용되었다. 또한 예후드 지역은 느헤미야 시대에 비로소 독립된 속주가 되었으며, 느헤미야의 역할이 총독으로서 재설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느 2:6; 비교, 느 5:14). 성서 외적 자료들에는 유다에서 바고히, 예히스기야, 예호에셀과 아흐자이, 엘나단, 그 밖에 하나냐 혹은 하누나, 말키우, 우리우, 그리고 YZN(?) BR YSB이 예후드의 총독으로 불렸으며, 사마리아 속주에는 산발랏과 그의 두 아들들이, 그리고 [?]YHW와 하나냐가 총독으로 활동했음을 알려준다.

8. 참고문헌

- 김지은, “페르시아 제국시대 시리아-팔레스틴의 행정체제”, 『구약논단』 6집 (1999년 6월), 145-171.
- 도널드 E. 고웬, 『구약 예언서 신학』 (차준희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원제 D. E. Gowan, *Theology of the Prophetic Books: The Death & Resurrection of Israe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8).
- 민경진, “페르시아 제국시대의 유대역사 재구성”, 『구약논단』 27집 (2008년 3월), 113-137.
- 베르너 H. 슈미트, 『구약성서 입문 I』 (차준희/채홍식 옮김), (서울: 대

- 한기독교서회, 2001). 원제 Schmidt, Werner H., *Einführung in das Alte Testament* (Berlin: Walter de Gruyter, 1995).
- 이형원, 『성서주석-열왕기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 존 그레이, 『열왕기상』 (한국신학연구소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2), 393; 원제 Gray, J., *1 Kings: A Commentary* (OTL; London: SCM Press, 31977).
- 한동구, “신명기의 역사적 사유와 신학”, 『구약논단』 39집 (2011년 3월), 12-29.
- Avigad, N., *Bullae and Seals from a Post-Exilic Judean Archive* (Qedem 4; Jerusalem: Hebrew University, 1976).
- Alt, A., *Kleine Schriften zur Geschichte des Volkes Israel 2* (München: C. H. Beck, 1953).
- Berger, P.-R., Zu den Namen “ששבצר” und “שנאצר”, *ZAW* 83 (1971), 98-100.
- Blenkinsopp, J., *Judaism: The First Phase* (Grand Rapids: Eerdmans, 2009).
- Carter, C. E., *The Emergence of Yehud in the Persian Period: A Social and Demographic Study* (JSOTSup 294;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 Cross, F. M., “A Report on the Samaria-Papyri”, *VTS* 40 (1988), 17-26.
- Dion, P. E., “ששבצר” and “ססנורי”, *ZAW* 95 (1983), 111-112.
- Donner, H., *Geschichte des Volkes Israel und seiner Nachbarn in Grundzügen 2* (GAT 4,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1995).
- Elliger, K., *Deuterocesaja 40:1-45:7* (BK XI,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 Forrer, E., *Die Provinzeinteilung des assyrischen Reiches* (Leipzig:

- Hinrichs, 1920).
- Galling, K., *Studien zur Geschichte Israels im persischen Zeitalter* (Tübingen: Mohr, 1964).
- Herrmann, S., *Geschichte Israels in alttestamentlicher Zeit* (München: Kaiser Verlag, 1980).
- Hoglund, K., “The Achaemenid Context”, in P. R. Davies (ed.), *Second Temple Studies 1: Persian Period* (JSOTSup. 117;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1).
- _____, *Achaemenid Imperial Administration in Syria-Palestine and the Missions of Ezra and Nehemiah* (Atlanta: Scholars Press, 1992).
- Japhet, S., “Sheshbazzar and Zerubbabel”, *ZAW* 94 (1982), 80-98.
- Jepsen, A., *Die Quellen des Königsbuches* (Halle: Niemeyer, 1956).
- Klauber, E. G., *Assyrisches Beamtentum nach Briefen aus der Sargonidenzeit* (LSSt V,3; Leipzig: Hinrichs, 1910).
- Kratz, R. G., *Das Judentum im Zeitalter des Zweiten Tempels* (FAT 42; Tübingen: Mohr, 2004).
- Leuze, O., *Die Satrapieneinteilung in Syrien und im Zweistromlande von 520 bis 320* (SKG.G 11,4; Halle: Niemeyer, 1935).
- McEvenue, S. E., “The Political Structure in Judah from Cyrus to Nehemiah”, *CBQ* 43 (1981), 353-364.
- Noth, M., *Könige I 1-16* (BK IX,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²1983).
- _____, *Geschichte Israel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¹⁰1986).
- Porten, B., *The Elephantine Papyri in English: Three Millennia of Cross-Cultural Continuity and Change* (Leiden: Brill, 1996).
- Rudolph, W., *Esra und Nehemia* (HAT 20; Tübingen: Mohr, 1949).

- Rüterswörden, U., *Die Beamten der israelitischen Königszeit* (BWANT 117; Stuttgart: Kohlhammer, 1985).
- Schunck, K. -D., “Das Amt des פֶּהָרָה im Alten Testament”, S. Beyerle, G. Mayer und H. Strau (ed.), *Recht und Ethos im Alten Testament: Gestalt und Wirkung*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9).
- Stern, E., *Material Culture of the Land of the Bible in the Persian Period 538-332 B.C.* (Warminster: Aris & Philips Ltd, 1982).
- _____, “The Persian Empire and the Political and Social History of Palestine in the Persian Period”, *CHJ* I (1984), 82-86.
- von Soden, W., *Akkadisches Handwörterbuch* 1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65).
- Wolff, H. W., *Dodekapropheten 6: Haggai* (BK XIV, 6;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6).
- Würthwein, E., *Die Bücher der Könige: 1.Kön.17-2.Kön.25* (ATD 11,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4).
- Zimmerli, W., *Ezechiel 1-24* (BK XIII/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1979).

검색어

폐하

총독

최고 책임자

속주

예후드

A Study on the Hebrew *peḇāb* in the Old Testament and the Epigraphic Materials

Hyeong-Geun So Dr. theol.

Professor, Department of General Education

Namseoul University

Governor is, according to Korean lexicon, a head of the colonial administration and a position that governs all administrations of province. In other words, this word presuppose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colonization, and it means a chief who is appointed in the provi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use of Hebrew *peḇāb* in the Old Testament and the epigraphic materials. Generally Hebrew *peḇāb* derived from the Assyrian Province-System, and the deuteronomic Historian accepted the concept of Hebrew *peḇāb* firstly in the Old Testament, and the Israelites in the exilic period realized Hebrew *peḇāb* by the

experience of the exile, for example by the prophet Jeremiah and Ezekiel etc. Furthermore the meaning of Hebrew *peh* indicated not only the Governor of the province, but also the chief officer of the region under the province. The region of Jehud began with an independent province in the period of Nehemiah, and the role of Nehemiah was authorized as Governor again (Neh 2:6; cf. Neh 5:14). There were many Governors according to the epigraphic materials, for example, Bagothi, Jechezkia, Jehoezer, Ahzai, Elnatan, Hanana or Hanuna, Malkiu, Uriu, and Y'ZN(?) BR YŠB in the province of Jehud, and Sanballat, his two sons Delaja and Shelemja, [?]YHW) and Hananja in the province of Samaria.

Key words

pebāb

Governor

A chief officer

Province

Jehud

- 투고일: 2013년 7월 01일
- 심사일: 2013년 7월 20일
- 게재 확정일: 2013년 8월 07일